



보도시점 2023. 6. 28.(수) 08:00
6. 28.(수) 석간

배포 2023. 6. 27.(화) 16:00

글로벌 '케이-푸드(K-Food)' 시장 확대를 위한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식품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100조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푸드(K-Food)'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1년 기준 656조원 규모의 식품산업을 2027년 1,100조원(연평균 성장률 9%)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4차(2023~2027)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둘째,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라면·배 등 수출 유망품목을 '케이-브랜드(K-Brand)'로 육성하고, 현재 11개인 1억 불 이상 수출 품목을 2027년 2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관광·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2027년까지 미식관광상품인 15개의 '케이(K)-미식벨트'를 조성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도 확대하여 국산 식재료 수출 확대에 연결한다.

셋째, 김치·전통주·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시킨다. 김치는 안정적인 원료공급 기반 마련, 자동화 공정 개발·보급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로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전통주는 명주를 육성하여 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장류는 발효 기술의 과학화를 통해 소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넷째, 농업과 식품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료 생산단지 확대, 식품 소재·반가공 산업 활성화,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포상 확대 등을 통해 협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경영(ESG)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식품기업을 위한 '사회가치경영(ESG)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 등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붙임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인포그래픽)

별첨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신기태 (044-201-2116)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산업성장	식품산업 규모	수출확대	K-Food 수출액	농업연계	국산 원료 사용량
(’21) 656	→ (’27) 1,100조원	(’22) 88.2	→ (’27) 150억불	(’21) 594	→ (’27) 800만톤

01 첨단기술을 통해 식품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 푸드테크 산업 확산



-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24~’26 : 27개분야(스마트제조, 대체식품)
→ ’32 : 10대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
- ▶ ‘K-푸드테크 글로벌센터’ 설치

☑ 그린바이오 기술 적용 확대



- ▶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
- ▶ 신식품 소재 발굴 및 상품화 지원

02 K-Food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K-Food 수출 확대



- ▶ 수출 유망상품을 K-브랜드로 육성
(1억불 이상 수출품목 : (’22) 11 → (’27) 20개)
- ▶ 저온 물류·유통체계 확충
- ▶ 신규 수출시장 개척



- ▶ ‘K-미식벨트’ 조성
(’27) 15 → (’32) 30개소
-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23) 8 → (’27) 80개소
- ▶ ‘K-Food 식재료 공급망’ 구축



- ▶ ‘외식 서비스 등급제’ 도입
- ▶ 푸드테크 활용 창업 모델 개발

03 전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김치 종주국 위상 제고



- ▶ 원료공급단지 조성 확대
- ▶ 자동화공정 모델 개발·보급
- ▶ 우수 종균 개발 및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 ▶ 명주 육성을 위한 자금·컨설팅·R&D 지원 확대
- ▶ 한식 연계 수출상품화



- ▶ K-Food 소스 개발 지원
- ▶ ‘장 문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재

04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 ▶ 식품기업-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원료중계 플랫폼’ 구축
- ▶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생산단지 조성 확대
- ▶ 대두 등 대체식품 원료 DB 구축·제공

☑ 국산 원료 사용 기업 인센티브 강화



- ▶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 정책자금, R&D 등 지원
- ▶ 정부 포상, 우수 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05 식품산업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 식품·외식 기업 경영 안전망 확충



- ▶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청년 인턴 지원
- ▶ 원료매입 시설향대화 자금 지원, R&D 계약재배 등 지원

☑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 ▶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 ▶ 수출기업 등 대상 ESG 경영 컨설팅 지원
- ▶ 식품기업이 활용가능한 탄소 감축 방법론 개발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 ▶ ‘식품 복합 문화단지’로 육성
- ▶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정으로 전국 식품기업 지원 기능 강화
- ▶ 중장기 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

☑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 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
- ▶ 소비자 정책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